

백설공주

옛날 어느 왕국에 공주님이 태어났어요.

“어쩜 이렇게 어여뵤까? 살결이 눈처럼 하얗구나. 백설공주라고 불러야겠다.”

왕과 왕비는 갓 태어난 딸을 보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왕비는 곧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왕은 아름다운 새 왕비를 맞았어요.

그런데 새 왕비는 자기보다 아름다운 사람을 두고 보지 못했어요.

왕비는 진실만을 말하는 요술 거울에게 늘 이렇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왕비님입니다.”

그 대답을 들어야만 차가운 왕비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요.

시간이 흘러 백설공주는 어여쁜 소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왕비는 요술 거울에게 물었지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왕비님도 아름답지만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습니다.”

화가 난 왕비는 사냥꾼을 불렀어요.

왕비는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사냥꾼은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가여운 공주님, 왕비님이 찾지 못하도록 멀리멀리 떠나세요.”

백설공주는 울면서 숲으로 도망쳤어요.



숲속을 헤매던 백설공주는 외딴 오두막에 이르렀어요.

들여다보니 오두막은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네. 좀 쉬어 가도 될까? 어? 신기하다! 모든 게 작아.
어어? 이상하다! 모든 게 일곱. 의자도 일곱, 접시도 일곱. 어머,
침대도 일곱 개네.”

도망치느라 치진 백설공주는 식탁 위에 있던 빵을 먹고 나서
일곱 번째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어요.

밤이 되자 오두막 주인인 일곱 난쟁이가 돌아왔어요.

난쟁이들은 집 안이 어질러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일곱째 난쟁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누가 내 침대에서 자고 있어!”

복적이는 소리에 잠이 깬 백설공주는 왕비를 피해 도망쳤다고
이야기했어요.

“불쌍한 공주님, 우리와 함께 살아요. 조심조심 또 조심. 낮선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 주지 마세요.”

며칠이 지나 왕비는 다시 요술 거울에게 누가 가장 아름다운
지 물었어요.

“왕비님도 아름답지만 백설공주님이 천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사냥꾼이 날 속였구나. 내가 직접 해치우겠어!”



왕비는 먹음직스럽게 생긴 사과를 골라 독을 발랐어요.

그리고 과일 장수로 변장했지요.

왕비는 산을 넘고 또 넘어 일곱 난쟁이의 오두막에 도착했어요.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가 있어요. 아가씨의 붉은 입술처럼 새빨간 사과랍니다. 잠깐 문을 열어 보세요.”

백설공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쟁이들이 문을 열어 주지 말라고 했어요.”

백설공주가 거절하자, 왕비는 창문 틈새로 사과를 쓱 내밀었어요.

“그럼, 맛이라도 봐요. 정말 맛있으니까.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걸요.”

“탐스러운 사과네. 맛있어 보여. 한입만 아삭 깨물어 볼까?”

사과를 베어 문 순간, 백설공주는 온몸에 독이 퍼져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호호호. 이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겠지?”

왕비는 백설공주를 버려둔 채 자리를 떠났어요.



저녁이 되자, 일곱 난쟁이가 돌아왔어요.

난쟁이들은 쓰러진 백설공주를 보고 영영 울었어요.

백설공주는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지요.

“백설공주님, 못된 왕비의 꾀에 넘어갔군요.”

“여전히 아름다운 우리 공주님을 캄캄한 땅속에 묻을 순 없어.”

“오래오래 볼 수 있게 유리 관에 모시자.”

어느 날, 한 왕자가 숲을 지나다가 유리관을 보았어요.

“누구지? 이 아름다운 여인은?”

“백설공주입니다.”

왕자는 백설공주에게 반해 유리관을 달라고 부탁했어요.

일곱 난쟁이는 백설공주를 잘 지킨다는 약속을 받고 유리관을 내주었지요.

그런데 신하들이 유리관을 옮기다 돌부리에 툭! 백설공주 목에서 사과 조각이 툭!

“우아, 공주님이 살아났어!”



왕자는 깨어난 백설공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공주님, 나는 이웃 나라 왕자입니다.”

“왕자님이 나를 다시 살려 주셨군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일곱 난쟁이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았답니다.

